보도시점 2025. 04. 30.(수) 11:00 배포 2025. 04. 30.(수) 09:00

2024년 낙뢰, 10년 평균 대비 약 44% 증가

- 「2024 낙뢰연보」 발간 -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024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4 낙뢰연보**」**를 발간**하였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4만 5천 회로, 최근 10년**(2015~2024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1천 회보다는 약 44% 많고, 2023년에 비해서는 약 99% 많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6%**(22,780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21,742회)와 경상남도(19,649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광주광역시가 673회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2024년 낙뢰의 약 84%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적게 관측되었고, 9월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8월로 63,537회(약 44 %)가 관측되었고, 특히 8월 5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9%(27,431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되었다.

「2024 낙뢰연보」는 기상청 행정누리집(https://www.kma.go.kr/kma)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낙뢰가 집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국민들이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낙뢰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4 낙뢰연보」 발간 참고 자료

담당 부서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명규 (02-2181-0861)
		담당자	연구관	남경엽 (02-2181-0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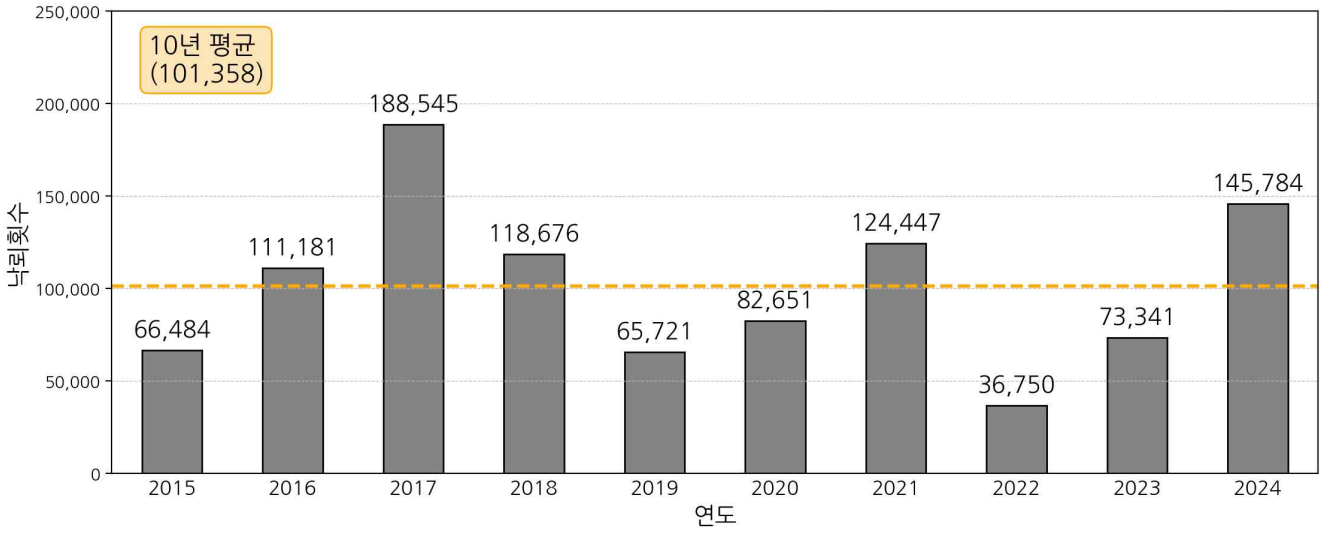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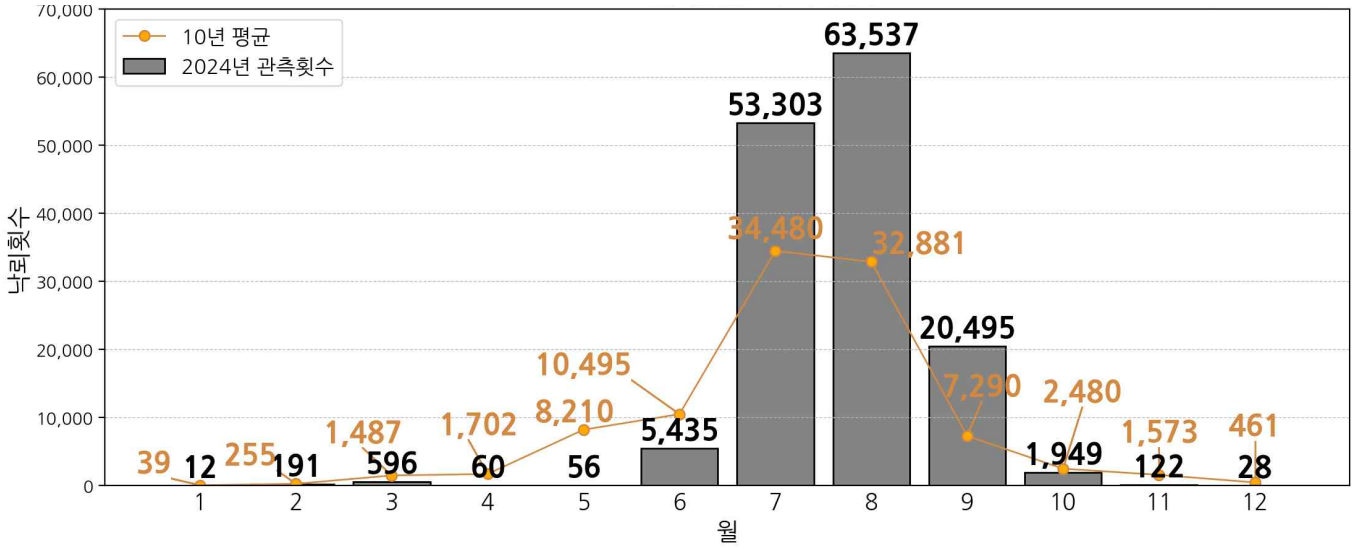
붙임 「2024 낙뢰연보」 발간 참고 자료

□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도별 낙뢰 발생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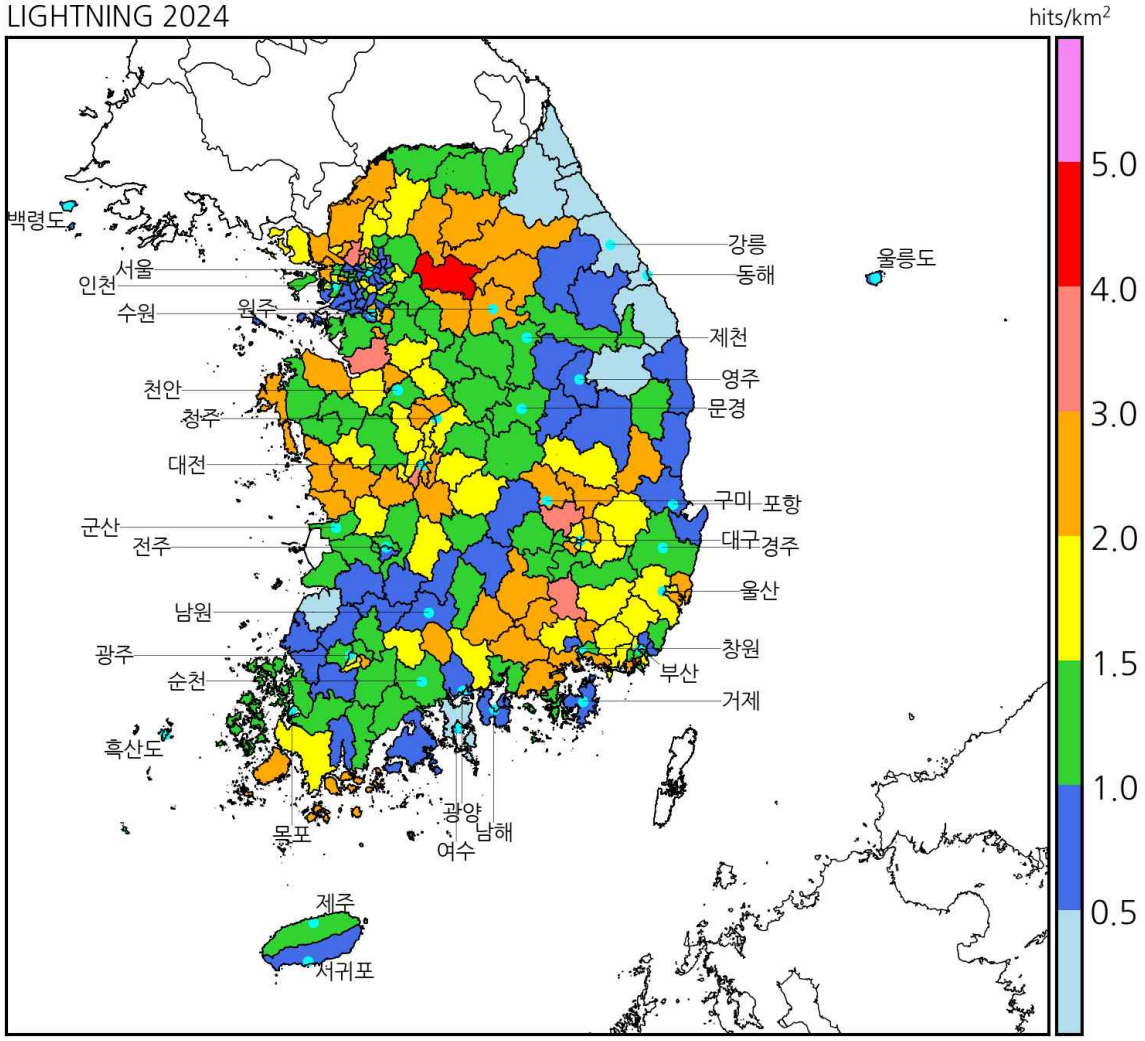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10년(2015~2024) 낙뢰 발생 횟수 및 10년 평균 횟수

□ 2024년 전국 월별 낙뢰 발생 횟수



<그림 2> 2024년 전국 월별 낙뢰 발생 횟수

□ 2024년 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횟수 공간분포



<그림 3> 2024년 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횟수 분포